

## 자연경관형 및 역사문화형의 농촌 마을길 계획

김은자 · 이유경\* · 임창수 · 최진아 · 김상범 · 박미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A Study on Planning Trails of Natural and Historic-Cultural Landscapes in Rural Villages

Kim, Eun-Ja · Lee, Yoo-Kyoung · Lim, Chang-Su · Choi, Jin-Ah · Kim, Sang-Bum · Park, Mi-Jung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ABSTRACT** : This study discusses developing historical trails and ecological trails in rural area. Since the leisure time and interests in environment and health have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hikers who enjoy the beautiful landscape and regional culture through the exploration of natural regions has been growing. However, these various road haven't been related to the rural village in many cases, so it is necessary to make some alternatives for revitalizing the region and improving incomes of non far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applications of rural trail plan that fits for a scale of the rural village and loc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divided forms of the rural village road into type of the natural landscape resource (Gangreung Anbandegi Village) and that of the historical culture resource (Yongin Hakil Village) according to amenity resources of objective village. The plan for village road basically made by the best of valuable resources of village unit, connected existing 'Trail' of other departments to the village and suggested a case of plan applied to the field so as to emphasiz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 It should be possible to induce hikers to rural area and be suggested as a measure for improvement of village image, regional vitalization and incomes of non farm.

**Key words** : Rural Identity, Rural Amenity, Rural Road, Trail Planning in Rural Area

## 1. 서론

최근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문화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환경·생태 및 역사·문화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손장명, 2012). 특히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직접 접하고 즐기는 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올레길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도보로 자연경관을 느끼고 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하는 문화·환경지향적인 체험관광은 이제 보편적인 생활 및 관광문화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등은 문화탐방로(문화체육관광부), 생태탐방로(환경부), 숲길(산림청),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군산

구불길, 해파랑길 등 '걷는 길'을 개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현재 약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윤문기, 2014).

바람직한 탐방로 설정을 위해서는 문화재, 유적지, 역사적 장소, 조망점 등의 점적 요소와 도로, 가로, 물길 등의 선적인 요소가 면적인 공간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져 지역 및 장소 중심의 걷는 길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관광루트 개념을 가진 탐방로는 선형(linear)의 개념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으며(최종현, 2002; 박현만, 2012), 대부분 중앙정부가 관리주체인 길 조성 규모의 경우 전국 및 광역 수준으로 거점형태보다는 선형위주의 길 조성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탐방로 조성에서 탐방대상을 자연, 인공요소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상까지 확대하여 지역 환경적 특질을 나타내는 것(윤준도 등, 2009)으로 보고 있으며, 탐방의 대상은 자연경관, 인공경관, 인문경관 등 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역사, 생활, 무형의 자원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임초롱·이정수, 2012).

Corresponding author : Lee, Yoo-Kyoung

Tel : 031-290-0266

E-mail : upgoplay@konkuk.ac.kr

특히 농촌의 경우 가족여행실태조사에서 희망하는 방문지 활동으로 걷기여행과 농촌체험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한국관광공사, 2009),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 생태, 체험 등 어메니티자원이 탐방자원으로서의 매력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을 통한 걷는 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며, 지역의 주요 어메니티(amenity)를 토대로 형성되므로, 크게는 시·군 등의 지자체와 작게는 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도보를 통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여행객들이 체험하고 그 지역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관광보다 더욱 지역과 관광객의 밀착된 형태의 관광활동으로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자원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걷는 길 조성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루어지는 지역사업으로 사업수행의 중심이 지역에 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09). 따라서 매력자원이 살아있는 농촌마을의 걷는 길 계획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체험자원 등이 풍부함에 따라, 자연자원 혹은 역사자원 전체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탐방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탐방로 자체를 공간으로 인식하여 거점형태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탐방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전략의 하나로서 농촌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의 자원을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자연경관형’과 ‘역사문화형’의 마을길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동향

### 1. 자연경관자원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에 관한 연구

정휘(2008)는 광역차원의 탐방로계획을 위하여 노선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거점지역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자원밀도, 기존노선의 활용, 광역탐방로 네트워크 형성, 주변녹지 및 보행체계와의 연결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경사가 완만한 지역, 탐방자원의 매력 및 대표성, 도로 및 철도와의 마찰이 적은 곳, 노선의 형태 등 13개의 계획요소를 도출 하였으며, 사례지역(지리산권)의 핵심탐방자원, 우수경관지역, 경사, 생태탐방가능자원의 밀도, 주변 녹지 및 유사시설, 기존의

활용 가능 탐방노선 등의 분석과정을 통해 개략적인 노선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탐방로 노선선정 계획연구를 실시하였다. 김기원(2009)은 치유숲길 계획과 설계에 필요한 4가지 항목(조성 가능 장소, 치유숲길의 구조 및 담을 내용, 치유숲길 관리내용)과 치유 숲길에 필요한 최소면적, 임상, 유형, 숲길의 구성원리, 주요 통과지점, 거리, 소요시간, 너비, 노면, 가장자리 등 10개 항목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정필모(2009)는 주왕산국립공원의 지형, 지질, 경관자원 및 탐방 프로그램, 공원별 자연관찰로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탐방객들이 다양한 자원 및 프로그램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설판을 제안하여 자연관찰로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안송이(2010)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사례로 현지 조사와 탐방코스별(설악산, 울산바위, 금강굴·천당) 지질·지형자원의 구분과 분석을 통하여 지형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형관찰 학습길 개발과 그에 관련된 해설판 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은찬(2011)은 군산시의 구불7길을 중심으로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탐방로 주변에서 상시 관찰이 가능한 생태자원으로 한정하기 위한 식생 및 조류조사를 통하여 고군산군도(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의 생태·문화탐방계획 및 종합계획도를 도출하였다. 황국웅과 장병관(2011)은 낙동정맥을 공간적 범위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생활자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자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장거리 트레일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목적 탐방로, 노선의 연속성, 잠재적 이용 가능성, 안전성 등을 계획원칙으로 가장 합리적인 노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현만(2012)은 고창군을 대상지로 관련 사례 및 법규검토, 탐방자원분석(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을 통하여 전라북도 고창군을 중심으로 경관성, 환경성, 기능성을 세부전략으로 고인돌 유적, 선운산도립공원, 고창읍성, 청보리밭축제, 복분자축제, 수산물축제 등의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발굴하여 조성하기 위한 생태탐방로의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박금미(2012)는 소백산의 지형(고도, 경사도), 기후, 물과 겹치는 구간의 수계, 교통, 식생자원, 동물자원, 문화자원 등의 자원 분포도 및 자락길의 구간별 현장 자연자원을 분석하였다. 구간별 노선조사내용으로, 1구간은 장승공원, 낙엽송 군락지, 소백산역 등 역사적 스토리가 많은 구간이며, 2구간은 풍기읍 보호수(소나무), 당골, 계곡, 옛길 등 다양한 식생군락지와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구간, 3구간은 비로사 소폭포, 초암사, 죽계구곡 등 수계 및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4구간은 마을숲, 소나무 군락, 장안사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구간이고, 마지막으

로 5구간은 소나무숲, 산신각(고치재), 인삼밭 등 농촌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하는 구간임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문가 집단의 태도분석을 통하여 산악형 생태탐방로 구성에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손장명(2012)은 이론적 고찰 및 녹색길(경남지역) 조성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해 바닷길을 연구 대상으로 트레일 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문화와 삶을 누릴 수 있는 선형의 융합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계획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옥순(2013)은 구미시 금오산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코스별 현황조사, 이용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숲 산책로 이용의 생리적 변화분석, 숲 산책로의 형태적, 잠재적 이용의식), 혈압, 심박동수 등의 기본 건강검사 뿐만 아니라 코스별 구성현황, 경사 및 거리 규모 등에 대한 현장 및 도면조사를 통하여 숲 산책로 조성을 통한 치유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숲속 산책로 이용자에게 치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2000년도 이후의 자연경관형의 국내 탐방로, 자연관찰로 등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숲길, 국립공원, 장거리 트레일을 중심으로 한 광역적인 규모의 선형 계획 연구들이 많으며, 대상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자연관찰 학습로, 지리관광(Geotourism), 치유숲길 형태의 길 조성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2.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에 관한 연구

김정규(2001)는 부여군의 국보(정림사지 5층석탑,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등), 보물(당유인원기공, 정림사지석불좌상, 금동석가여래입상 등), 사적(성흥산성, 궁남지 등), 중요무형(은산별신제), 그 외(중요민속, 천연기념물, 주요관광지, 문화행사)로 구분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형·수계, 경관특성 등의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대상가도로 선정된 구드래가로의 역사문화 조성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최종현과 장혜주(2002)는 역사·문화요소를 점, 선, 면적 요소로 구분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에 따라 도심문화 탐방로(문화·예술의 거리), 약령시 탐방로(전통생활 체험공간), 북·서성로 탐방로(섬유거리 및 관련연구 업무공간), 경상감영 탐방로(전통자갯거리 및 도심역사교육공간)등으로 탐방로를 나누어 환경을 보존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활용적 가치를 지닌 요인으로 보고, 대구시를 대상으로 대상지의 인문환경 및 역사, 문화환경 특성을 분석 및 종합하여 탐방로를 계획하였다. 김한배(2007)는 서촌지역의 탐방자원과 지역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경관(경희궁, 한양성곽, 경교장, 흥남과 가옥 등), 자연지세와 자연경관(인왕산, 백운동천 등), 인물과 문화특성의 자원분석을 실시하여 가로구간별 주제 및 루트 설정과 탐방로 관리운명을 위한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송지선(2007)은 역사·문화자원 분석을 크게 점, 선, 면적요소로 구분하였으며, 점적 요소는 경복궁, 고아화문, 동십자각, 국립민속박물관, 국제갤러리 등이고, 선적 요소는 백운동천, 삼청동천, 삼청동길, 통인시장, 인왕산 등산로 등이 있고, 면적 요소는 점, 선의 역사문화자원 등의 물리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주변 여건 등 비물리적인 것들도 포함한 광역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청계천 상류지천 유역의 하천의 복원지역과 함께 주변의 역사경관자원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역사탐방로를 제안하였다. 윤나리(2009)는 백제문화권의 중심인 공주시와 부여군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자원(자연문화, 역사문화, 전설)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백제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및 지역의 관광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관광안내소, 안내책자 및 심벌 제작 및 활용 등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연구를 시행하였다. 심현남(2011)은 안동시의 역사경관자원에서 고건축(퇴계의 도산서원, 고산정, 농암종택 등), 바위글씨(영지동천, 전평, 광현 등) 등의 가치가 높은 역사경관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겸비한 문화자원을 포함하여, 길에 숨어 있는 설화와 스토리를 찾아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활용하여 노선의 구상 및 계획과 체험프로그램 계획을 제안하였다. 전강은 등(2012)은 강화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김사용순절비, 독립만세운동기념비, 성공회 강화성당, 용흥궁, 진무영, 강화산성복문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형성, 구간별 특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쇠퇴해가는 강화읍 지역의 대안소득원 육성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거리를 계획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거리, 탐방로, 테마길 등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대부분의 거리조성 및 탐방로 연구들은 농촌공간이 아닌 도심 및 역사성이 강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조사를 통하여 탐방로와 연계시켜 자원의 활용과 복원 측면의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촌마을과 같이 지역적이고 협소한 공간의 자원을 활성화 하여 탐방로를 계획하는 계획연구는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광역적인 탐방로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소규모의 마을 자원 중심의 마을길 계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의 자원 분석을 통하여 마을길 유형을 선정하고, 선행연구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마을길 조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촌마을만의 농촌다움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마을길 노선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농촌마을의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2개소(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로 제한하였다. 이는 2014년도 농촌진흥청의 신기술시범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서 2013년도의 도농업기술원을 통해 마을길을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역들을 추천받은 후 마을사업의 특성에서 중요한 주민들의 의지와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선정 추진하였다. 각 해당 마을은 보유한 자원, 기존 길과의 연계성, 마을의 규모 등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유형별 농촌마을길 계획을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자원조사 및 현장조사, 기본계획과정으로 진행하였다(Figure 1). 현장조사 및 코스개발의 기준은 김은자 등(2013)의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농촌마을길 가이드라인 지침내용을 토대로 노선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마을의 자원조사결과와 주민면담을 통한 수요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길 조성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를 종합한 농촌마을길 가이드라인 지침 내용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선계획은 노선길이 및 형태, 폭, 경사도, 노면처리 등이고, 설계 및 시공 부분은 보행안전시설(안전펜스, 보행데크, 다리, 계단, 보행등, 배수, 사면보호 등), 부대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안내시설(안내센터, 종합안내판, 자원해설판, 표식, 방향표지, 주의표지 등)로

구분되며, 운영 및 관리 부분은 프로그램 계획, 마케팅 및 홍보, 모니터링 및 평가, 마을주민역량 등이며, 이러한 지침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마을 현장조사 및 마을길 계획을 실시하였다.

### IV.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 농촌마을길 조성방향

본 연구에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 마을길 조성 방향은 크게 연계성 및 순환성, 지속가능성,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연계성 및 순환성의 측면은 기존의 길 사업과 마을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중복성을 지양하고 농촌마을로의 방향을 유도함으로써, 마을 도보여행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속가능성의 측면은 길 조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인문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과 지역자원의 환경보호 등에 기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측면은 길 조성 계획이 단순히 시설계획 수준이 아닌 지역계획 차원에서 지역과 탐방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길 전문가 인터뷰조사, 선행연구 분석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농촌마을길 조성시 고려사항과 유형별 조성지침을 도출하였다.

농촌마을길 조성시 고려사항은 ‘기 조성된 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농촌 마을의 어귀길을 포함한 안길을 중심으로 조성한다’, ‘농촌지역주민의 사생활 및 경작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을의 농촌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시 하며, 인공적인 재료와 공법사용을 최소화 한다’ 등으로 마을길 계획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7개 항목이 도출되었으며(Table 1), 유형별 마을길 조성지침의 ‘자연경관형’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경작지, 유실수 등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원훼손은 최소화하되 훼손지는 식생 복원을 실시하며, 자연스러운 굴곡형태의 노선을 지향 한다’,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물 종, 자생 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태성 증진과 지속적인 경관을 유지시킨다’ 등으로 6개 항목이며, ‘역사문화형’은 ‘역사·문화적 유적과 유물의 훼손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역사적 고증을 통한 옛길이나 유적지 등의 복원 계획을 실시한다’, ‘길 주변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존중하고, 의례·풍속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게 하여 지역민과 이

연구 과정	
연구 절차	연구 내용
문헌분석	· 농촌마을길 가이드라인 지침 내용 고려 (2013, 김은자 등)
마을조사	· 마을자원조사 · 주민수요조사
마을길 현장조사	· 노선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 등 조사
마을길 계획	· 마을길 유형분류 · 동선분석, 계획노선 선정 · 개발방향 설정 · 코스개발

Figure 1. The Process of the Study

용자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각 마을에 내려오는 마을 및 지명유래, 구전설화 채록,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등으로 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Table 2).

피득령을 중심으로 옥녀봉(1,146m)과 고루포기산(1,226m)을 좌, 우측에 두고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대관령, 남으로는 설총과 울곡 선생이 학문을 닦은 곳이라 전하는 노추산, 서로는 발이크고 기골이 장대한 발왕이가 살았다는 발왕산, 동으로는 부채살처럼 꽃모양을 한 화란봉이 위치하고 있어 안반데기는 자연자원의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준령의 중심에 있는 마을로, 현재 27여 농가(43명)가 거주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고랭지채소 주산단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안반데기 마을은 기존의 ‘강릉 바우길’과의 연계가 가능한 마을로 강릉 바우길은 백두대간에서 경포와 정동진까지 산맥과 바다를 함께 걷는 총연장 약 350km로 강릉바우길 16개구간, 대관령바우길 2개구간, 울트라바우길, 계곡바우길로 이루어져있다.

## V. 마을길 기본계획

### 1. 자원 및 주민수요조사

#### 1) 강릉 안반데기마을

강릉 안반데기마을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해발 1,100m의 고지대로서

Table 1. The Consideration of Designing Village Trails in Rural Areas\*

구분	고려사항
마을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조성된 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농촌 마을의 어귀길을 포함한 안길을 중심으로 조성한다.</li> <li>- 농촌지역주민의 사생활 및 경작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li> <li>- 마을의 농촌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시 하며, 인공적인 재료와 공법사용을 최소화 한다.</li> <li>- 길의 시·종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선의 단절구간이 없는 순환형태의 노선을 지향한다.</li> <li>-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노선을 먼저 고려한다.</li> <li>- 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자연경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산림기본법, 국제법 등을 참조하고 역사문화경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제법,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 등을 참조하여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코스 선정은 미연에 방지한다.</li> <li>-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을 선정하여 마을의 자원 홍보를 유도한다 (문화재 주변 주요 지점, 전망대, 진입부 경관 등)</li> </ul>

\*출처 : 김은자 등(2013), 재수정

Table 2. The Planning Guideline by a Type of Rural Village Trails\*

구분	조성지침
자연경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경관과의 조화와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경작지, 유실수 등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li>- 자원훼손은 최소화되 훼손지는 식생 복원을 실시하며, 자연스러운 굴곡형태의 노선을 지향 한다.</li> <li>- 주변 식생과 유사한 식물 중, 자생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태성 증진과 지속적인 경관을 유지시킨다.</li> <li>- 시설물은 자연재료인 목재, 석재 등을 주로 사용하며 인공시설물은 가능한 배제한다.</li> <li>- 색상은 자연자원 색보다 저명도,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주변 자연경관보다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려한다.</li> <li>- 습지, 둠벙 등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계시킨다.</li> </ul>
역사문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적 유적과 유물의 훼손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역사적 고증을 통한 옛길이나 유적지 등의 복원 계획을 실시한다.</li> <li>- 길 주변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존중하고, 의례·풍속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게 하여 지역민과 이용자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li> <li>- 각 마을에 내려오는 마을 및 지명유래, 구전설화 채록, 역사문화자원의 테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li> <li>- 역사문화자원의 주변 시설물은 과도하지 않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이질감 없는 경관을 조성한다.</li> <li>- 옛길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충분한 해설기능을 제공(표지판, 지도, 모바일 앱 등)한다.</li> </ul>

\*출처 : 김은자 등(2013), 재수정

마을의 자원조사 결과 우수한 경관(백두대간의 중심지역, 경지면적198만m<sup>2</sup>의 고랭지 배추농업, 해발 1,100m의 고도), 피덕령과 고루포기, 고원 구릉지의 독특성(하절기 서늘한 기후), 임산자원, 명에전망대(별자리관측) 등 풍부한 자연경관자원이 있으며,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서낭당, 민속전시관(화전민)이 있으며, 시설물 자원으로는 화전민 체험촌, 마을회관, 서낭당, 명에전망대 등이 있다.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 주민들은 강릉 바우길 및 주변 마을(대기2,3리)과의 숙박 및 체험 연계에 대한 마을길 조성을 희망하며, 마을 내 안내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용인 학일마을

용인 학일마을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학일1리에 위치하고 있다. 용인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도심지와 접 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유서가 깊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대도시 근교형 농촌마을이다. 학일마을은 3개의 자연부락(아람말, 감담말, 마삼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일마을은 현재 48여 농가(130명)가 거주하며, 고려 시대의 해주오씨 집성촌으로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마을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和議)를 반대한 3 학사 중 한 사람이었던 오달제가 태어난 출생지와 서당 터, 활터, 도요지(사기막터) 등이 지금도 남아 있다. 또한 기존의 '문수봉·성지순례너울길'과의 연계가 가능한 마을로, 용인문수봉·성지순례너울길은 용인 너울길의 역사

적 문화자원 및 숲길을 이용한 대표 코스로 양지면 송문 교에서 은이성지, 곱든고개, 용담조망, 와우정사, 청정학 일마을 등을 거치는 2개 코스(각각13.4km, 19.4km)로 구성되어있는 역사문화형의 걷는 길이다.

마을의 자원조사 결과 장경사(고명:쌍운암), 지계산, 도요지2(사기막터, 백자요지), 만음정(우물), 신라사지(금동불상 출토), 성황당터, 활터, 학일저수지 등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 쌍령산 두들바위와 신침, 지계산 관련 구전설화 및 매삼재와 간담말 등의 지명의 유래가 있어 스토리텔링으로 이용 가능하며, 표고버섯 수확, 고구마 감자캐기, 옥수수 따기, 물고기(미꾸라지)잡기,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인절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마을축제 등의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자연·농사 및 역사·문화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물 자원으로는 공동작업장, 슬로푸드 체험장, 황토방, 장독대, 미꾸라지 체험장, 하천생태 학습장, 종합체험장, 음수대, 원두막 등이 있다.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 주민들은 주변 탐방로와의 연계된 농촌마을길 조성으로 마을의 홍보와 다양한 체험소개의 기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지에 대한 자원조사 및 주민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Resources and Demand Investigation of the Villages

구분	현황		
	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	
가구 / 인구	27가구, 43명	48가구, 130명	
마을 자원	자연 경관 · 역사 문화	우수한 경관(백두대간의 중심지역, 경지면적 198만m <sup>2</sup> 의 고랭지 배추농업, 해발1100m의 고도), 피덕령, 고루포기산, 곱자리골, 명에전망대 (별자리관측), 고원 구릉지의 독특성(하절기 서늘한 기후) 등	장경사(고명:쌍운암), 지계산, 도요지2(사기막터, 백자요지),만음정(우물),신라사지(금동불상 출토), 성황당터, 활터, 학일저수지, 구전설화(지계산, 쌍령산 두들바위와 신침), 지명의 유래(매삼재, 간담말) 등
	기타	전통생활체험촌 숙박, 주변 산책로 걷기 및 숲 체험, 화전민 체험촌, 마을회관, 서낭당, 명에전망대 민속전시관(화전민생활), 오죽헌, 허균생가/기념관, 선교장, 대관령 옛길, 대관령 박물관, 참소리박물관, 주문진 어시장, 월정사, 용평스키장, 알펜시아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인절미·송편·다식 만들기, 김장, 야생화 압화, 천연 염색, 표고버섯 수확, 모내기, 버베기/탈곡, 미꾸라지잡기, 고구마·감자캐기, 학일마을 축제, 공동작업장, 슬로푸드 체험장, 황토방, 음수대, 하천생태 학습장, 원두막, 종합체험장, 마을회관(화장실, 주차장 등), 쌍령산, 용인 농촌 테마파크, 한택식물원, 와우정사, 이주국장군고택, 성지순례너울길(은이성지, 미리내성지, 등) 등
주민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릉 바우길 및 주변 마을(대기2,3리)과의 숙박 및 체험 연계를 위한 그린로드 조성 희망</li> <li>•마을 내 안내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필요(숙박시설 및 공용공간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탐방 및 등산객 유치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체험활동을 통한 마을홍보 및 활성화 희망 (마을길 정비 및 개선 희망)</li> <li>•마을 내 휴식공간 및 체험공간 조성 필요</li> </ul>	

## 2. 농촌 마을길 현장조사

강릉 안반데기마을과 용인 학일마을의 마을길은 노선 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로 나누어 현장조사 한 결과 ‘노선’의 특성으로, 마을 내 노선 폭의 평균적으로 1.5-3m정도로 사람 및 자동차가 함께 지나가는 형태이며, 대부분이 포장도로로서 보행이 편리한 편이나 일부 큰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차분리 및 주의표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안반데기 마을의 경우 고지대에 위치하고 밭 사이를 거니는 형태이므로, 안전펜스 설치 및 주의표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설계 및 시공’ 부문에서는 마을 내 종합 안내판의 정비, 마을길 형태에 맞는 안내 및 방향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하며, 그늘막과 쉼터로 이용 가능한 간단한 휴게시설(벤치 및 정자)과 산길과 연계된 두 마을에는 경사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운영 및 관리’의 경우 두 마을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숙박 및 체험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재정비가 필요하며, 체험활동의 경우 예약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

다. 또한 마을 특산품과 자원을 이용한 마을 장터코너와 체험프로그램의 재정비를 통한 마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안반데기마을은 마을 어디서든 풍부한 우수 경관자원을 감상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길과 강릉 내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학일마을은 전통이 있는 마을 역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과 마을 내 역사문화자원들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호수와 숲 등 마을의 경관자원 또한 풍부하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마을길 조성 후 주민참여형태의 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 3. 유형별 마을길 동선 분석

자연경관형인 강릉 안반데기마을의 마을길 조성을 위한 동선 현황은 첫째, 기존길(강릉 바우길)과의 연계성을

Table 4.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of the Villages Trails

구분	현황	
	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
노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길과 기존의 '강릉 바우길'과 연계시켜 마을길의 광역화 가능</li> <li>- 마을 안길을 이용한 마을순환이 가능한 형태</li> <li>- 고도가 높은 마을이라 노선의 길이, 난이도 등의 선택폭이 넓어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과 관심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가능</li> <li>- 마을 내 노선은 주로 1.3m의 안정적인 노선 폭과 아스팔트 포장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 학일마을은 기존의 '성지순례너울길'의 종점부로서 마을 길과의 연계가 가능</li> <li>- 마을 안길을 이용한 마을순환이 가능한 형태</li> <li>- 마을 내 노선은 주로 1.5-3m의 안정적인 노선 폭과 아스팔트 포장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 도모</li> <li>- 순례너울길, 쌍령산 등산길, 저수지 주변 수변길 등 노선의 길이, 난이도, 길의 연계가 다양하여 이용객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가능</li> <li>- 마을 내 안길은 대부분 마감처리가 견고하게 처리되어 있어 보행 쾌적성 제공</li> <li>- 마을 내 일부 그늘에 그늘막 형성이 가능한 쉼터 필요</li> </ul>
설계 및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자동차 길과의 보차분리가 필요</li> <li>- 해발고도 1100m에 이르는 마을로, 경사지가 심한 구간과 야생동물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적절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li> <li>- 급한 경사지에서의 토사 유실·유발을 대비한 일부 위험 구간에 계단설치 필요</li> <li>- 배수는 현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자연배수 실시</li> <li>- 안개 및 야간 보행시 필요한 낮은 높이의 보행등 설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로주변에 슬림한 구조의 안전펜스가 있으나, 주변 경관에 저해되는 색채와 크기</li> <li>- 다리는 침수 방지를 위한 높이와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여 설치하였음</li> <li>- 저수지 주변 토사 유실이 야기되며 급경사지에 계단 설치 필요</li> <li>- 배수는 현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자연배수로 용이함</li> <li>- 저수지 주변 야간보행을 위한 보행등이 필요</li> </ul>
	부대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마을 입구, 노선의 시점 부근에 부대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음</li> <li>- 마을에 전반적으로 벤치와 그늘막 형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필요</li> </ul>

구분		현황	
		강릉 안반데기마을	용인 학일마을
안 내 시 설	- 마을까지의 용이한 접근을 위한 방향유도 시설 및 안내판 설치 필요 - 마을길이 다듬어지지 않아, 마을의 전반적인 구조 및 방향을 알 수 없으므로 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및 방향표지의 적절한 설치가 필요	- 마을 내 주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 동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의 시점과 주요거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음
		- 마을의 체험 및 농작물의 장터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므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및 유지관리가 필요	- 종합안내판은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서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전달 가능한 형태
운영 및 관리	- 마을 내 운유점, 운유우, 운유택에서 숙박이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예약 가능 - 마을의 체험 및 농작물의 장터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므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및 유지관리가 필요 - 장전이기계곡, 솔섬, 추암, 매봉산, 귀내미마을, 노추산돌담, 대관령 양떼목장 등의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가능함	-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체험의 질과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하여 1일 1개 단체 체험진행을 하고 있음	- 마을의 장담그기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토속 먹거리 판매로 마을 소득 창출
		- 마을 방문객들에 대한 지역환대,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이용객과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효과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과 운영진의 정기회의 개최함
			- 이주국장군고택, 와우정사, 장경사, 농촌테마파크, 한태식물원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적극적인 연계로 다양한 코스의 거점으로 이용 가능함

통한 마을길의 광역화가 가능하다. 둘째, 해발 1,100m에 위치하고 전체 경작지가 경사도 15°정도의 상태로 높은 고도와 경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길 조성에 이점이 있다. 셋째, 마을길을 이용한 순환형 보행로 조성이 가능하다. 넷째, 마을 내부의 차량 접근이 불편(노선 폭이 좁고 경사지)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역사문화형인 용인 학일마을의 마을길 조성을 위한 동선 현황 분석결과는 첫째, 기존길(성지순례너울길)과의 연계성을 통한 마을길의 광역화이며 둘째,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형태와 저수지가 있어 숲속 산책로 및 수변 테마 마을길조성에 이로운 점으로 활용 가능하며 셋째, 마을 내 동선의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순환형 보행로의 계획이 가능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 4. 유형별 마을길 개발방향

IV. 농촌마을길 조성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자연경관형 안반데기마을의 마을길 개발방향을 도출한 결과 첫째, 고원 구릉지대의 우수한 경관의 연속성과 독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자연스러운 굴곡 형태로 조성한다. 둘째, 마을 대부분이 고랭지 농업지역이므로 자원 및 경작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한다. 셋째, 마을의 기존 종합 안내판의 재정비를 통해 마을 산책로 및 시설물 위치 표기로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주요 거점 지점에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한 휴게 및 편의 시설을 보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다섯째, 일정구간 사유지, 경작지, 좁은 노선 폭, 경사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보행로 정비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노선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이용자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등으로 제시가능하다.

역사문화형 학일마을의 마을길 개발방향은 첫째, 미리 내 성지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기존의 성지순례너울길과 연계한 광역화된 노선 계획과 마을 내 순환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한다. 둘째, 마을의 지형 및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평지, 산길, 수변 생태 탐방로 등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셋째, 장경사, 도요지 및 활터 등 역사문화자원과 옛터의 복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원 해설판과 방향표지판을 설치한다. 넷째, 학일마을의 구전설화로서 쌍령산 두들바위와 신침과 지계산, 지명으로서 매삼재(마삼재)와 강당말(간담말) 등의 유래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형태의 노선을 계획한다. 다섯째, 마을의 기존 종합 안내판의 재정비를 통해 마을 산책로 및 시설물 위치 표기로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여섯째, 주요 거점지점에 휴게 및 편의 시설을 보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노선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이용자가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등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 5. 유형별 마을길 노선별 코스개발

##### 1) 자연경관형 마을길 코스(강릉 안반데기마을)

자연경관형 마을인 강릉 안반데기마을의 코스개발은 총 3코스로 각 코스별 노선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로 나누어 계획되었다(Table 5). 단, C코스의 경우 자전거타는 길로 A코스와 구간이 겹치므로 운영 및 관리부문은 생략되었다.

노선A(Trail A)는 화전민체험촌에서 출발하여 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는 안반데기의 ‘바람보러 가는 길’. 안반데기의 대자연경관과 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으며, 일출이 가장 아름다운 안반데기의 포토존(휴게공간)에서의 휴식과 자연바람을 느낄 수 있는 코스이다. 노선B(Trail B)는 안반데기 전시관에서 출발하여 대규모의 밭과 산의

경계를 거슬러 오르는 마치 하늘을 걷는 기분이 드는 ‘하늘 걷는 길’. 마을 일대의 고랭지 채소밭이 한눈에 조망되며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명에전망대를 둘러보고 고루포기 정상 부근까지 이어지는 안반데기마을의 메인노선이자 가장 긴 코스이다. 노선C(Trail C)는 화전민체험촌의 자전거대여소에서 출발하여 자전거를 타며 경관상상이 가능한 안반데기의 ‘자전거길’로, A코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노선으로 다른 노선에 비하여 비교적 노면처리가 양호하고 경사가 완만한 형태의 코스이다.

Table 5. The Trail Development in Gangreung Anbandegi Village

구분		Trail A	Trail B	Trail C
노선 계획	코스 길이	4km	6.7km	1.5km
	소요 시간	1시간30분	2시간30분	40분
	시점 및 종점	화전민체험촌(마을회관) → 안반데기 전시관(300m) → 대기리2214-187번지 휴게공간 [포토존](1.2km) → 풍차 밭길 (1.5km) → 서낭당(갈림길) (2.7km) → 화전민체험촌(4km)	안반데기전시관 → 고루포기(3km) → 대기리 2214-46 휴게공간(3.9km) → 명에전망대(5.7km) → 안반데기 전시관 (6.7km)	화전민체험촌(자전거대여소) → 안반데기전시관(300m) → C 코스 종점지 (1.5km)
설계 및 시공	보행 안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행을 위하여 일정구간 안전펜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행을 위하여 일정구간 안전펜스 설치</li> <li>•일부구간 안전한 야간보행을 위한 보행등 배치</li> <li>•사고방지, 사유지보호, 안전 위협의 인지 등을 위해 고지대 주요 거점에 주의표지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구간 도로포장 및 정비 필요</li> <li>•경작지 보호 및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펜스 설치</li> </ul>
	부대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장실은 화전민 체험촌의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주차장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 근처 기존부지 활용</li> <li>•이용 빈도가 높은 대기리 2214-107번지(마을회관)와 대기리 2214-187번지 부근에 휴게공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 빈도가 높은 대기리 2214-229(명에전망대), 대기리 2214-46 부근에 휴게공간 조성</li> </ul>	-
	안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유래 및 소개, 마을길 노선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기존 종합안내판 재정비</li> <li>•노선의 시점과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 분지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li> </ul>	-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전민 음식조리 및 체험(곤드레밥, 산채비빔밥, 곰취쌈, 김장체험 등), 귀틀집 집기, 안반데기마을 커피시식, 박물관 관람, 화전민속 이야기, 서낭당 소원지 쓰기, 겨울체험 (비료포대타기, 언덕구르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자리관측(명에전망대; 해돋이체험), 안반데기 역사와 문화사진 관람, 가을철 채소밭 사진촬영, 채소밭길 걷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벤트체험형: 안반데기 자전거대회, 사진촬영대회, 걷기대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홍보 및 원활한 체험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정비를 통한 예약시스템 실시</li> <li>•마을의 운유점, 운유우, 운유택을 이용한 숙박시설의 경우 사전 예약제를 통해 체험의 질을 높임</li> <li>•주변관광지와 연계성을 통하여 이용객의 흥미유발 및 체험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단기 이벤트 및 관광 패키지 개발</li> <li>•마을 소득을 위하여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토속 먹거리의 제공 및 판매 도모</li> <li>•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 협의체(지역주민, 현지운영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류 및 교육을 추진</li> </ul>		



Figure 2. The Three Trails in Gangreung Anbandegi Village



Figure 3. The Trail Master Plan of the Gangreung Anbandegi Village

## 2) 역사문화형 마을길 코스(용인 학일마을)

역사문화형 마을길계획은 총 3코스로 각 코스별 노선 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로 나누어 계획되었다 (Table 6). 노선A(Trail A)는 학일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 농촌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을 안길을 순환하는 코스로 학일체험장 및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장경사 가는 입구와 성황당 터를 지나, 기존의 성지순례 너울길과 연계

가능한 코스이다. 노선B(Trail B)는 마을의 중심지점(체험공간)에서 시작하여 학일저수지와 마을숲을 지나는 자연경관이 풍부한 코스로 숙박 시설인 황토방까지 연계된 마을의 메인노선이다. 노선C(Trail C)는 도요지(사기막터)와, 과수원 공간을 이용한 체험 활동을 위한 코스로, 쌍령산, 장경사를 연계하는 노선으로 이용 가능하며 A, B 코스와 연계하여 마을 전체를 순환하는 형태의 긴 노선으로 연장 가능한 코스이다.

Table 6. The Trail Development in Yongin Hakil Village

구분	Trail A	Trail B	Trail C	
노선 계획	코스 길이	2.5km	2km	800m
	소요 시간	50분	40분	30분
	시점 및 종점	학일마을 입구 → 학일 체험장 및 마을회관(1.2km) → 장경사 가는 길(1.5km) → 475번지 휴게공간(1.7km) → A코스 종점지(2.5km)	학일 체험장 및 마을회관 → 학일 황토방(0.3km) → 힐링 휴게공간(0.8km) → 숲속 산책로(1.1km) → 학일 포토존(1.4km) → B코스 종점지(2.0km)	학일저수지 → 도요지(백자요지)(150m) → 야간캠핑장(350m) → 장경사 가는길(700m) → C코스 종점지(800m)
설계 및 시공	보행 안전 시설	• 안전보행을 위하여 일정구간 보차분리	• 숲 산책로 부근의 사면보호를 위한 식생 복원 • 저수지 주변에 주의표지판과 야간보행을 위한 보행등 배치 • 학일저수지 주변 목재데크 다리조성(2개소)	• 숲 산책로 일부구간 나지발생지역에 식생복원 • 도요지 및 야간캠핑장 주변 야간보행을 위한 보행등 배치
	부대 편의 시설	• 이용 빈도가 높은 학일리 475번지 부근에 휴게공간 설치	• 이용 빈도가 높은 학일리 913번지(마을회관), 학일리 산 16-2번지 부근에 휴게공간 조성 • 화장실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 근처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며, 주변 차폐 식재 조성	• 이용 빈도가 높은 학일리 511번지 부근에 휴게공간 조성
	안내 시설	• 마을의 시점과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 역사 및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을 유래 및 장소 설명 등의 해설판 설치	•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 역사문화자원위치, 마을유래 및 소개, 마을길 노선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기존 종합안내판 재정비 • 숲 산책로에 50m간격의 리본 설치로 안전한 방향유도	• 노선의 시, 종점과 주요거점에 간결한 디자인의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 숲 산책로에 50m간격의 리본 설치로 안전한 보행유도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염색, 커피 바리스타, 야생화 압화, 산야초 효소 담그기, 천연비누 만들기, 풍란목부작, 야생화 화분 만들기, 목공예 소품 만들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인절미/송편 만들기, 두부 만들기, 표고버섯 수확, 물고기(미꾸라지)잡기, 벼베기/탈곡, 고구마/감자 캐기, 밤따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캠핑장, 백자요지 발굴하기(도요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회관, 황토방을 변형 및 활용하여 마을 소득창출 가능성을 높임</li> <li>• 기존의 체험활동에 마을의 유래, 전설, 설화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켜 방문객들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공유하여 재방문의 가능성을 높임</li> <li>•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 협의체(지역주민, 현지운영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류 및 교육을 추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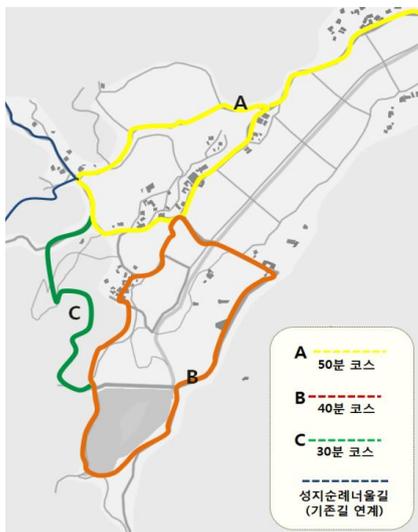


Figure 4. The Three Trails in Yongin Hakil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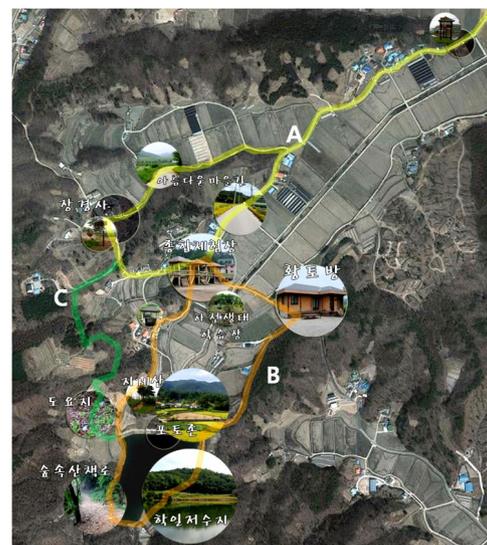


Figure 5. The Trail Master Plan of the Yongin Hakil Village

## VI. 결 론

현대인들이 여가시간 증가와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지역 탐방을 통해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도보 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길들은 농촌마을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와 농외소득 향상으로의 대안은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길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측면을 크게 연계성 및 순환성, 지속가능성, 마을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연계성 및 순환성의 측면은 기존의 길 사업과 마을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중복성을 지양하고 농촌마을로의 방향을 유도함으로써, 마을 도보여행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속가능성의 측면은 길 조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인문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과 지역자원의 환경보호 등에 기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측면은 길 조성 계획이 단순히 시설계획 수준이 아닌 지역 계획 차원에서 지역과 탐방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농촌 마을길 계획 시, 원칙적으로 농촌마을과 기존에 활성화 되어 있는 '걷는 길'을 조사하여 마을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마을단위의 가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이 보유한 자원의 특성에 따라 마을길 유형을 자연경관자원형(강릉 안반데기마을)과 역사문화자원형(용인 학일마을)의 2유형으로 분류하여 농촌 마을의 규모와 현지 특성에 맞는 마을길 계획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마을에 유형별 마을길 계획 사례를 적용하기에 앞서, 마을길과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및 조성방향을 작성하였으며, 조성방향에 따라 자연경관자원형인 안반데기마을은 기존의 '강릉 바우길'과의 연계성을 통한 마을길의 광역화가 가능하고, 해발 1,100m의 고도와 마을 내 경사도가 평지에서 15°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길 조성에 이점이 있으며, 체험공간 및 휴식공간 등을 이용한 거점형태의 순환형 보행로 조성이 가능한 형태이다. 마을길 코스개발을 위하여 우수한 자연경관자원과 지리적 여건(고원 구릉지, 고랭지 배추농업 경작지, 고루포기산, 명에전방대)을 고려하여 안반데기마을만의 수려한 경관자원의 연속성과 독특성이 유지되도록 자연스러운 굴곡 형태의 마을길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3개의 마을길노선을 개발하였다. 역사문화형인 용인 학일마을의 마을길 동선분석 결과 주변의 쌍령산과 기존의 '문수봉.성지순례너울길'의 종점부로서

등산객 및 도보여행객들을 마을내로의 연계가 가능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형태와 저수지가 있어 숲속 산책로 및 수변 테마 마을길 조성이 가능하며, 마을 내 동선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체험활동이 활발한 마을로 거점지역 형태의 순환형 보행로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마을의 장경사, 지계산, 도요지(사기막터), 성황당터, 활터 등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자원들과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떡만들기 등 역사 및 문화체험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일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길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3개의 마을길노선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촌 마을길 조성은 광역적이고 선형적인 기존의 탐방로와 차별성을 두기위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농촌마을만이 지닌 매력적인 자연경관 · 역사문화 · 체험자원을 거점형태로 활용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전략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마을길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중심의 마을단위의 가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활성화 되어 있는 타 부처의 '걷는 길'을 마을과 연계하여 도보여행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마을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등 농외소득 향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마을길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길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분화된 지침과 체계화 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PJ01008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Reference

1. Kim, Ki-Weon, 2009, A Theoretical Study on Planning and Design of Forest Therapeutic Trail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 12(4): 57-66.
2. Kim, E., Y. Lee, S. Kim, C. Lim, M. Park, J. Choi and J. Lee,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course of guideline for fostering the Rural village roa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1): 189-207.

3. Kim, J., 2001, A Study on the way for Plan of the History and Culture street.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4. Kim, H., 2007, A Study on Making a Historic Cultural Walk of Old West Village, Seoul with the Case Study Area around Mt. Inwang and Baegundong Strea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5(3): 22-36.
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9, Story of cultural-eco trails guidelines.
6. Park, G., 2012, Study on the Planning of a Mountainous Ecological Visiting Trail.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7. Park, H., 2012, A Study on developing regional eco-cultural trails -A case study of Gochang-gun, Jeollabukdo,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8. Son, J., 2012, A Study on the trail design method for green way. Master's Thesis, Youngsan University.
9. Song, J., 2007, A Study on the Historical Trail Plan With the Restoration of Upper Stram of Cheonggyecheon,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10. Sin, O., 2013, Fundamental Research on Construction of Forest Trail as Connecting with Forest Effect. Docto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11. Sim, H., 2011, A Proposal for Cultural Trail of Nakdonggang Watershed : Focused on Andong-si, Dosan-mye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An, S., 2010, The Development of Geo-Trails at Seorak National Park by Geotourism.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13. Yoon, H., 2009, A Study on developing cultural ecological trails in Baekje cultural area.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4. Yoon, M., 2014, Rural village roads workshop presentat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15. Yoon, J., S. Jo, Y. Choi and, S. Jeon, 2009, Encourag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Townscape Planni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1-144.
16. Lim, C. and J. Lee, 2012, A Study on the Trail Plan by Analysing Local Identity - Focused on Ganggyeong, Chungcheongnam-do.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3): 45-54.
17. Jeon, K., S. Hong and S. Kim, 2012, A Street Design Proposal, Uti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3(1): 33-50.
18. Jeong, P., 2009, The Development of Nature-trails at Juwangsan National Park ; The Application of Geotourism Concept.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9. Jung, H., 2008, A Study on a planning method for networking trail routes.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 Choi, J. and H. Jang, 2002, Joseon Dynasty Daegu 邑城址 trail master plan of the history and culture.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8(3): 17-37.
21. Ha, E., 2011, A Trail Revitalization Plan for Gogunsan Archipelago Region Using Eco-cultural Resource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2.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9, Survey on the family trip.
23. Hwang, G. and B. Jang, 2011, The Methods and Its Application of Long Distance Trail Planning in a Mountainous Reg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7(3): 55-65.

---

접 수 일: (2014년 4월 24일)

수 정 일: (1차: 2014년 5월 25일, 2차: 6월 9일  
3차: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20일)

■ 3인 익명 심사필